

# 이재명 대표 “법률적으로도 죽으려면 죽일 수 있어”

### 대법원 파기환송 겨냥 발언 “기득권과 싸움” 우회 비판 “혐오·대결 세상 달라져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 육영수 여사 피살사건을 거론하며 “저도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남북문제나 정치적 대립, 정치적 이유로 그 분이 돌아가신 게 맞는 것 같다”며 “안타깝게도 지금도 그런 시도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충북 옥천군을 찾아 전통시장 앞에서 연설을 하면서 “여기가 육영수 여사의 고향이다. 제가 어릴 때 돌아보면 참 인상이 좋았던 분 같은데, 문세광씨에게 살해를 당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대한민국 역사에 보면 정치적 이유로 누군가를 죽인 일이 상당히 많다”며 “정치적 이유로 누군가를 죽이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혐오하고, 대결하는 세상은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런 발언은 최근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옥천 방문에 앞서 이날 오

전 충북 증평군 전통시장 방문에서도 “조봉암도 사법살인을 당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한 일도 없이 내란음모죄로 사형선고를 받은 일이 있다”고 거론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어떤 분이 저를 붙잡고 ‘제발 죽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우선 물리적으로 죽는 것이 있다. 과거 제가 (피습 당시) 1밀리미터 차이로 살기도 했다”며 “그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죽으려면 죽일 수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이번 대선이 국민의힘 후보와 경쟁인 줄 알았는데, 국회 후보는 어디 가고 난데없이 대한민국 거대 기득권과 싸우고 있다. 그게 누구든 국민과 함께 꼭 이기겠다”며 사법부를 우회적으로 겨냥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 후보는 “(일부 정치인은) ‘남을 죽여야지, 내가 다 가져야지’라고 생각한다. 500명, 1천명, 5천명, 1만명, 배를 타고 연평도 바다에 가서 폭파해서 싹 죽이고 확인사살하려고 확인사살 전 문가를 모아보라고 하지 않나”라며 “웃을 일이 아니라 진짜 있었던 일이다. 지금 내란이 끝났나”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우리가 권력을 맡긴 일꾼들이 우리에게 해코지를 하면 어떻게 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 국토종주편’에 나선 6일 충북 영동군 영동전통시장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 하나”라며 “확실히 혼쭐을 내줘야 하지 않나”라며 대선에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옥천 연설에서 “이 나라를 사는 똑같은 사람들 사이에 뭐 그럴 것이 있나. 생각이야 다를 수 있고 ‘나는 빨간색을 좋아하고 너는 파란색을 좋아하고, 섞이면 보라색일 수도 있고’ 이렇게 다를 수도 있다”며 “이를 두고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정부 추경 광주 153억·전남 2394억 확보

### AI·산업위기 등 대응

정부의 민생 추경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광주시와 전남도가 각각 153억원과 2,394억원의 연관사업 예산을 확보했다.

이번 추경예산은 재난대응 재원 확충, 통상·인공지능(AI) 지원, 민생지원 등을 위해 편성됐다.

광주시는 이번 추경에서 전략사업인 인공지능 예산 153억원을 최종 반영했다. 이에 따라 1단계 사업으로 구축한 국가AI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하는 고성능컴퓨팅자원(GPU) 지원사업 등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인공지능 예산이 요구

액에 비해 충분하지 않아 아쉽지만, 정부의 ‘지역사업 전면 배제’ 분위기 속에서도 일부라도 반영된 것은 의미 있는 성과”고 설명했다.

AI 예산과 함께 광주시·대구시 등 4개 광역시가 요청한 ‘도시철도 통합무선망철도 구축사업비’ 178억원도 반영, 도시철도의 안전운행 환경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전남도는 여객기 추락 참사 대응과 항공 안전 강화를 위한 무안·여수공항 안전시설(둔덕계량 설계·조류감시레이더 설치·기타 시설개선) 설치(35억 6,000만원), 농수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농수축산물 할인 지원(1,700억원) 등을 반영했다.

또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농업인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와 수급 안정(55억 예정), 소상공인·자영업자 소득증대를 유도하기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260억 예정), 여수국가산단 고용안정을 위한 산업위기지역 고용 총력 대응(50억원)도 포함됐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6일 “석유화학 위기 대응 등 지역산업과 관련된 예산이 다소 부족해 아쉽지만 부대의견을 통해 지원 근거는 마련했다”며 “2차 추경 대비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이 확대되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근산·김용현 기자

## 민주 “김문수 바지후보…한덕수 추대 사기극”

### 국힘 단일화 내용 맹공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민의힘이 공식 대선후보로 김문수 후보를 선출한 후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문제를 놓고 내용을 겪는 것을 겨냥해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민주당 황정아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바지 후보”를 뽑아 명분도 없는 단일화의 발판으로 삼으려 한 사기극이 폭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변인은 전남 단일화 문제를 논의한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두고 “지도부와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한덕수 당이냐’고 항변하는 김 후보를 ‘사기꾼’이라고 매도했다”며 “자신들의 대선 후

보를 바지 후보 취급하려면 경선은 왜 했나”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이 10~11일에 전당대회를 소집하겠다는 공고를 낸 데 대해서도 “코미디가 따로 없다”면서 “정당 사상 이런 사례가 있었나”라고 지적했다.

후보 단일화를 거쳐 10~11일에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하려 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통상의 관례대로 날짜를 못 박지 못한 점을 비판한 것이다.

황 대변인은 “국민의힘 경선은 내란 대항 한덕수를 후보로 추대하려는 대국민 사기극에 국민까지 끌어들이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강훈식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후보 단일

화는 노육과 노육의 대결”이라며 “소집일시도 특정하지 않은 전당대회는 계약할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계약서만 먼저 내민 꼴”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국민의힘이 단일화 과정에서 이번 대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가 명확해졌다”며 “국민 앞에서 반성과 혁신, 미래를 얘기하기는커녕 자기 당권 싸움에만 몰두하는 내란 계엄극우정당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 겸 수석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당권파는 전당대회를 소집해 후보의 당무 우선권을 무력화시키는 (당헌·당규) 개정을 할 것”이라며 “김문수의 항복이나, 제명이나”고 적었다.

서울=김현수 기자

## 김문수 “당이 날 강제로 끌어내리려 해”

### 후보 일정 중단 선언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6일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압박에 반발하며 후보 일정 중단을 선언했다.

김 후보는 이날 경주 방문 일정 도중 기자들에게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이라며 “저는 국민의힘 후보로서 대선 승리를 위한 비전을 알리는 데 온 힘을 쏟았다. 단일화에 대한 일관된 의지도 분명하게 보여드렸고 지금도 단일화에 대해 한결같은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당이 대선후보에 대한 지원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며 “기술적으로 전국위와 전당대회도 소집했다.

이것은 당 지도부가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를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씩이나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당에서 당 대선후보까지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다”며 “이런 거면 경선을 왜 세 차례나 했다. 그래서 저는 후보로서 일정을 지금 시점부터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울로 올라가서 남은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깊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광주변호사회 “이 파기환송, 원칙 무너뜨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지역 법조계가 “사법부 스스로 정립해 온 절차적 정의의 원칙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6일 성명을 통해 “사법의 정당성은 단지 판결의 결론에 있지 않고,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며 법의 원칙에 부합했는가에 달려 있다”며 “대법원의

판단은 충분한 심리 없이 기존의 절차를 무시하고 쫓기듯 성급히 결론을 내린 점에서 사법의 기본 명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과 원칙이 아닌 정치적 목적에 따른 표적 재판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자초했고, 국민들로 하여금 사법부의 신뢰에 깊은 의문을 품게 만들었다”며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 절차 진행이 이례적인 점을 보면 의문은 더

욱 커보인다”고 강조했다.

광주변호사회는 “헌법은 사법부가 정치로부터 독립되어야 함을 천명하고 있으며,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로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만 독립해 판단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절차적 정당성과 독립성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향후 이어지는 재판에서는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정치개입이라는 오해를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환준 기자

전남매일 창간 36주년 기념공연

2011 CJ AZIT CREATIVE MINDS 신장작  
2012 서울뮤지컬페스티벌 에그리앙코르 최우주작  
2013 국회대상 올해의 뮤지컬상  
2013 다뮤지컬 올해의 베스트 창작뮤지컬 BEST-3  
2013 제19회 한국뮤지컬대상 극본상

MUSICAL

# 여신님이 보고계셔

2025.6.14 -15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이동하 김지철 박준휘 류동휘 류찬열 차용학 안창용 조용휘 정세운 문성일 김도하 한보라

출품공연: 이동하 | 조준희 | 이현 | 안창용 | 정세운 | 류찬열 | 류동휘 | 차용학 | 안창용 | 문성일 | 김도하 | 한보라  
무대디자인: 이은영 | 조연극작: 이현 | 음악감독: 김성민 | 소품디자인: 김현민 | 의상디자인: 황민 | 발명디자인: 김현민 | 조명디자인: 이대 | 무대감독: 유MAP  
제작/기획: (주)연우씨 | 공연제작: (주)이아트스튜디오 | 후원: (주)전남매일 PLANET | 주관: PLANET | 소스: 유

예매 인터파크티켓 1544-1555 | 티켓링크 1588-7890 | 예스24티켓 1544-6399